



신한은행, 2021년까지 KBO 타이틀 스폰서 계약
신한은행은 KBO와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 후원을 2021년 까지 연장하고 올 시즌 대회 공식 명칭을 '신한은행 SOL KBO 리그'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1년까지 리그 공식 타이틀 사용 권리를 가지고 리그 중계 및 구장 광고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야구팬들과 소통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오른쪽)이 KBO 정운찬 총재와 포즈를 취했다. /신한은행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에 후원금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재단에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후원금은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의 씨푸드, 양식, 일식당의 도시락을 구매하고 개학 연기로 결식위기에 처한 아동 1000명에게 아동 도시락을 1주일간 지원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다. 김영래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오른쪽)이 이창구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금투협, 코로나19 극복 1682만원 성금

의료진·봉사자 방호복 구입 등 사용
금융투자협회는 9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성금 1682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신세계푸드-켈리스코, 식자재 공급 협약
신세계푸드는 켈리스코와 지난 5일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신세계푸드 본사 대회의실에서 식자재 공급 및 제품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세계푸드는 안정적인 매입 경쟁력과 선진 물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켈리스코의 외식 매장 80여곳에 신선한 농·축·수산물, 가공품, 비식품 등 식음사업 운영 전반에 필요한 식자재를 공급하게 됐다. 차기팔 켈리스코 C&D 본부장(왼쪽)과 김태권 신세계푸드 식재유통총괄 수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세계푸드

11번가, 中企 161곳 50억 조기대금 지급

코로나19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11번가 주식회사가 161개 중소기업·납품업체를 위해 50억 원 규모의 조기 대금지급을 결정했다. 11번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조기 대금지급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매달 대금지급조건으로 운영 및 유

11 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 69곳에 대해 3월 대금지급 시 다음달 받게 되는 4월 지급분을 한달 앞당겨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산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일회성 납품업체 92곳에 대해서는 수시 결제 방식으로 변경해 기존 대비 4일에서 18일까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게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그래도 함께라서 이겨낼 수 있다



이 상 현
칼럼

참 힘들고 어려운 경기환경이다. 어느 곳 할 것 없이 모두가 아우성친다. 소위 아비규환(阿鼻叫喚)이다. 그래도 간간히 들리는 선행과 봉사의 잔잔한 감동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있다. 많은 연예인이나 저명한 인사들이나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과 각종 물품으로 선행을 이어가고 있고, 갓 임관한 간호장교들이 임관식 이후 바로 대구로의 봉사 지원에 참여로 대견스럽다. 연일 정치권에선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민 불안을 먹이 삼아 갑론을박(甲論乙駁)의 아귀다툼에 여념이 없다. 대체 그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묻고 싶다. 그 와중에 안철수라는 정치인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부부가 자발적으로 부족한 의료진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 중이란다. 땀으로 흠뻑 뼀 의료용복장이 연일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개념 없는 정치인들과 너무나 대비가 되는 모습이다. 이는 필자의 정치색을 배제한 의견

이다. 우리 국민들은 서로 상대방은 나쁘고 자신을 옳음을 전파하려는 얌은 꼼수의 정치인들보다는 진정한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을 원한다. 영화배우 김보성 씨가 직접 트럭을 몰고 대구로 가 시민들과 교감하며 직접 구한 마스크를 나누어 주며 외친 '의리(義理)'가 진정한 시민의식의 의리라 할 수 있다. 많은 건물주의 임대료 지원이나 무임대료의 선행은 소상공인들에게 닥친 좌절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다. 건물을 소유한 많은 연예인이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고, 크게 형편이 좋지 않은 건물주들도 동참하는 모습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힘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력을 갖춘 민족이다.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 가맹 창업을 생각한다. 노하우의 부족도 이유겠으나 먼저 본사를 통한 노하우 전수와 관리 그리고 지원을 목적으로 가맹 창업을 선호한다. 그런 상호간의 목적이 일치하기에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더욱 확실해진 상생실천이다. 며칠 전 C 고기 프랜차이즈 본사가

전체 가맹점의 3월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기사를 읽었다. 참 대단한 본사라고 생각한다. 최근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과 함께 이 고난을 헤쳐나 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참으로 고무적 상생 관계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G 닭강정 브랜드는 전 점포의 임대료를 50%를 지원하고, C 커피 브랜드는 로얄티를 받지 않고 소모품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상생이 대한민국에 희망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다. 나눔의 미학은 많은 것을 만들고 이를 수 있다고 배웠다. 이제는 냉정한 대처와 실천이 필요하다. 93개국 이상이 국가가 한국에 대한 입국 통제를 했다는 보도가 연일 매스컴을 두드린다. 우리나라와 같이 보건제도가 우수한 나라가 이러한 감시와 제재를 받는다고 실망과 노여움은 금물이다. 모든 국민이 함께 사는 실천으로 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방법만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 모두 함께 최선의 실천으로 노력하자. /브랜드 M&A 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장 (컨설팅학 박사)

SC제일銀, 코로나19 피해 복구 1.3억 전달

노조 등 임직원 모금·매칭기부 대구·경북 지역에 최우선 지원

SC제일은행은 코로나19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임직원 모금 캠페인을 실시해 총 1억3000여만원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SC제일은행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노동조합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동참으로 6600만원을 모금했다. 여기에 은행은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 참여에 뜻을 같이한다는 의미로 동일한 금액을 매칭(Matching)기부해 총 1억3252만원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에 기부한 금액은 코로나19 피해복구를 위한 의료진과 저소득층 및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손소



최기훈 SC제일은행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본부장(왼쪽)이 김용희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에게 코로나19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해 임직원과 은행이 모금한 기부금을 전달하고 포즈를 취했다. /SC제일은행

독제, 긴급 비상식량의 구입에 쓰여질 예정이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구·경북 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전달된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 캠페인을 펼치고 대구·경북 지역 소재 영업점 직원들에

게 희망 메시지와 각종 지원 물품을 전달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은행도 이런 임직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동참한다는 의미로 임직원 모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부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인사

- ◆**국도연구원** ◇보직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장(민간투자연구센터장 겸직) 윤하중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 공공건설혁신지원센터장 김민철 △기획경영본부 연구기획·평가팀장 윤영모
- ◆**더퍼블릭** △대표이사 겸 편집국장 김영덕 △편집국 차장 겸 정치부팀장 김영일 △산업팀장 선다혜 △금융팀장 김은배 △마케팅팀장 조하나
- ◆**아주경제신문** △금융증권부장 전운
- ◆**고려대학교** △박물관장 강제훈 △데이터과학원장 김상식

- ◆**한국은행** ◇부사장 보임 및 이동 △커뮤니케이션국장 황인선 △감사실장 오영주 △대전충남본부장 최요철 △전북본부장 이재량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전보) ◇단장 △소재부품장비정책관 최일엽 △제조혁신산업단 소순중 ▷팀장 △정책총괄팀 김장영 △정보화운영팀 김용국 △화학산업팀 양진석 (승진) ◇팀장 △정산환수팀 권영미 △연구비운영팀 직무대리 최세봄 △균형발전평가센터 조동현 △전략기술팀 정민하 △시장협력팀 이용상 △철강세라믹팀장근영 △섬유탄소나노팀 정지인 △용합신산업팀 신우영 △수송플랜트팀 하종현

인상, 임청희씨 모친상 = 9일 오전 1시4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1일 오전 9시20분, 장지 서울 금천사. 02-2227-7597
▲김영숙(청명산업 대표·강원여성경영인협회 고문)씨 모친(정영순씨·95세)상, 한대우씨 장모상, 소영·기용 조모상=9일 오전 별세, 호반장례식장 특실1호, 발인=11일 오전 9시, 장지 경춘공원묘원. 033-256-4427

배포도우미 모집
강남, 서초지역 근무
010-5241-6694